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조직·인력 비교 연구

강창민* · 정원희**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평생교육 인력 비교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평생교육 조직 비교분석 | 〈참고문헌〉 |

< 국문 초록 >

평생교육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산업, 경제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인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조직·인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평생학습조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평생학습조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조직·인력을 비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직분석의 경우 제주시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을 여러 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이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분석의 경우 인력의 수요 예측을 위한 세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대림대학교 교양학사부 조교수

부적인 담당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조직·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많은 제주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요의 예측을 통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보다 평생교육이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평생학습조직

I. 서론

교육은 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도시 그리고 국가의 경제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도시와 지역이 교육과 혁신을 핵심적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부문이 함께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성장과 사회적 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시민교육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적 주민자치 참여를 고무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을 지식기반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등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명문화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 1960년대의 새마을교육부터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으나, 과거의 접근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을 활용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을 담보로 한 국가 학습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을 활용하고 있어 평생학습 분야에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나타나 있다.

특히, 2007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권한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등 다양한 변화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업의 중복운영,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정책개발 및 운영의 비조직성과 비체계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및 인력확보를 통하여 평생교육 서비스 질적 제고 및 기회 확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평생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시 평생학습관과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인구수가 비슷한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 대전시 대덕구, 시흥시, 남양주시를 제주도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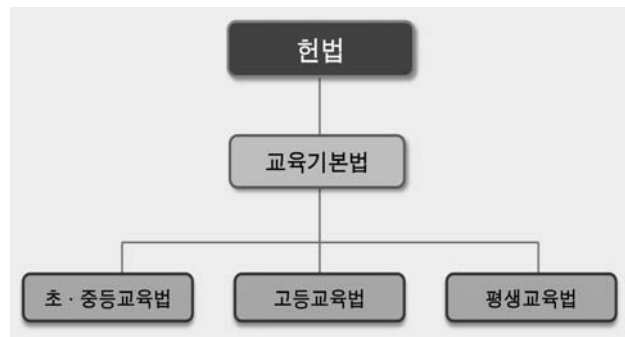
평생교육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산업, 경제 보다 그 중요성이 덜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평생교육 활성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인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조직·인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평생학습조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평생학습조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조직·인력을 비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1). 즉 평생교육의 대상에 해당되는 계층은 법적으로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닌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국제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p.5.

〈그림 1〉 교육 관련법의 기본적인 체계

이를 보다 학술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의 개념은 대상과 목적, 연구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오영훈, 2010: 5-6).

유럽연합의 경우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이는 전 생애적 관점과 모든 학습의 범주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정당화하는 것이고(employability), 또 하나는 개인의 내면 발달과 성숙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personal development), 그리고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의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평생

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EU위원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2002년 의결에서 ‘교육과 훈련은 사회적 통합, 적극적인 시민의식,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성취, 적응력과 고용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라고 평생학습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김미숙 외, 2009).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개념으로 형식(정규) 학습은 물론 직업세계와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무형식 학습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다.

김승보·이주호(2007)는 평생학습을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주장함 평생학습의 강화가 곧 고용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한편, 차갑부(2004)는 학습과 교육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학습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구분하였다.

또한 한승희(2003)는 교육은 학습을 어떠한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종의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개입활동으로 공급자의 의도가 강하나, 학습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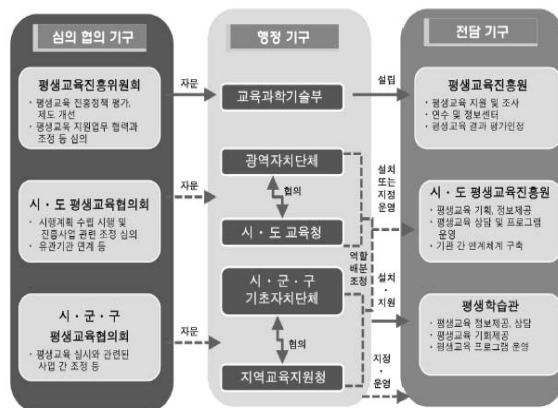
OECD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학습자 측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원조하는 교육으로서 순환교육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학습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하고, 학습은 평생학습, 교육은 순환교육으로 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임 평생학습은 인간의 평생에 걸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의 총칭이고,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차갑부, 2004).

요컨대 평생교육의 이념은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권위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개념인 반면, 평생학습은 보다 자립적·자기관리적인 활동이며,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환경정비와 다양한 지원활동인 데 반해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자립적 학습활동을 가리킨다(岩水雅也, 2002; 차갑부, 2004 재인용).

2. 평생교육체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을 "평생교육기관"이라 정의하며, 이는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을 말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도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광역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 그리고 기초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0조는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는 국가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정책들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 국제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p.24.

〈그림 2〉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반면 광역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2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 협의회는 의장(시·도지사), 부의장(부교육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기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①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② 평생교육 상담,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⑤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표 1〉 기초 단위 지방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 역할 구조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시군자치구 평생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 시군구 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장(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가능(제14조)
평생학습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사업운영(제15조) 	-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요청시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시·군·구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후 설치 또는 지원(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평생교육진흥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제6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시군구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교육장 협의(제16조)
평생교육진흥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 규정한 모든 평생교육 사업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안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제22조) 	-

※ 지역교육장은 위의 역할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평생교육시설의 인허가 및 등록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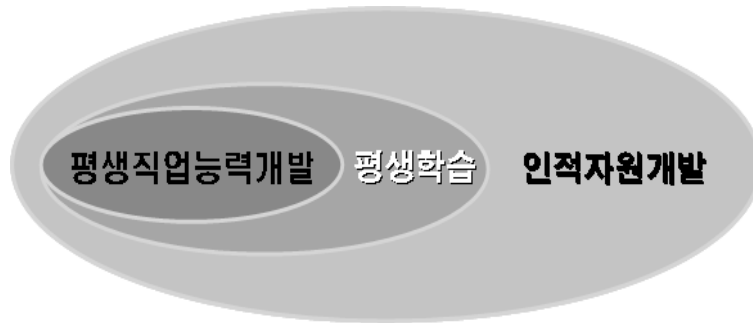
자료: 고영상 외(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p.18.

위와 같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제주도시 평생교육학습관, 서귀포시 평생교육학습관과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평생학습관 조직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는 부천시, 대전 대덕구, 시흥시, 남양주시의 평생학습팀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3. 평생학습의 영역

‘평생학습(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평생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위해 실시하는 훈련)’, ‘인적자원개발(인적자원개발(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의 개념은 현재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강조점의 차이일 뿐, 정책적으로는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은 동전의 양면 관계(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있다.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넓은 개념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가장 좁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p.75.

〈그림 3〉 평생학습의 영역

평생학습이 인적자원개발의 일부분이나, 인적자원개발이 평생학습의 일부분이나는 개인 삶의 질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 조직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인적자원개발 목적의 차이에 불과하다. 현재 평생학습 이념과 정책의 산파 역할을 하는 UNESCO, OECD, EU 에서는 영역을 구분하기보다는 주로 성인기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3대 정책이념인 자아실현(개인발달), 고용가능성, 사회적 포용(적극적 시민정신)으로 합일될 수 있다.

4. 평생교육 정책환경

1)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새로운 사회와 문명으로서 평생학습시대의 도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교과부, 2008: 11-20). 평생학습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 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교육 문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경제체제는 농경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정치체제는 봉건왕조 → 국민국가 → 민주시민사회, 사회적 인정체제는 혈통 → 학력(졸업장) → 수행능력(학습인증), 사람을 보는 관점은 비용의 인구(人口) → 근력의 인력(人力) → 재능의 인재(人才)로, 문명사적 변화의 중심이동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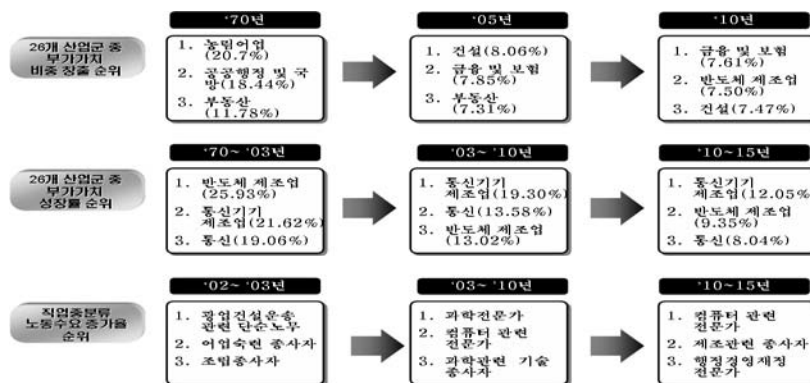
〈그림 4〉 평생학습시대로의 변화

또한 사회·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가 대두되고 있다. 지식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경제, 창조적 자본, 창조사회의 시대 도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창조성은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21세기 국가 정책의제로 보여진다. 이를 Richard Florida는 국가의 경쟁력을 국가가 가진 인재, 기술, 관용성을 포함한 창조성으로 파악, 한국의 GCI(Global Creativity Index: 창의성 지표)는 45개국 중 16위, 창조적 계층을 보유한 정도인 GCC(Global Creative Class: 창조적 인재)는 39개국 중 38위로 제시. Alvin Toffler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과거의 부가 경작(glowing)과 제조(making)에서 나왔다면, 미래의 부는 창의적 사고(thinking)에 달려 있다고 전망하였다.

3차 산업 중심에서 창조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조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될 전망이다. 인력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 분야는 컴퓨터, 과학, 기술 분야로, 5년 후에는 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자, 행정·경영 재정전문가의 인력수요 증가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창조적 산업은 R&D, 출판, 소프트웨어, TV와 라디오, 디자인, 음악, 영화, 장난감 및 게임, 광고, 건축, 공연예술, 공예, 비디오 게임, 패션, 미술 산업을 포함('01년, John Howkins). 창조적 산업은 미국 산업분야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경제 수익의 47%를 창출(2006년, Richard Florida)하고 있다.

산업 및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창조적 지식 근로자 양성을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의 창출-교환-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5),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그림 5〉 노동 부가가치 창출 비율

인구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도시화 사회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를 전망하게 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20세기 초 31세 → 21세기 초(’05년) 78.63세)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6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9.5%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18년 14%로 고령사회’, ‘26년 20.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표 4〉 고령화속도 국제비교

국가명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p.13.

노인의 학력, 건강, 경제력, 활동분야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로 인한 적극적인 노령화(Active Aging) 대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인구 정책, 기존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 학제·교육과정·평생교육 체제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OECD는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도시의 잠재력에 주목,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시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2005년 90.2%), 도시가 가진 평생학습의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간, 도시 내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즉, 사회통합형 국가 전략으로서 평생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사회는 4가지 새로운 위협에 직면(Talyor-Goody, 2004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위험,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케어의 부담 급증 위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킬 위험, 전통적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등)의 민영화로 인한 일부 계층 배제시킬 위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평생학습은 새로운 위험 등을 줄여서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하는 국가 안전망 전략 및 사회 안전밸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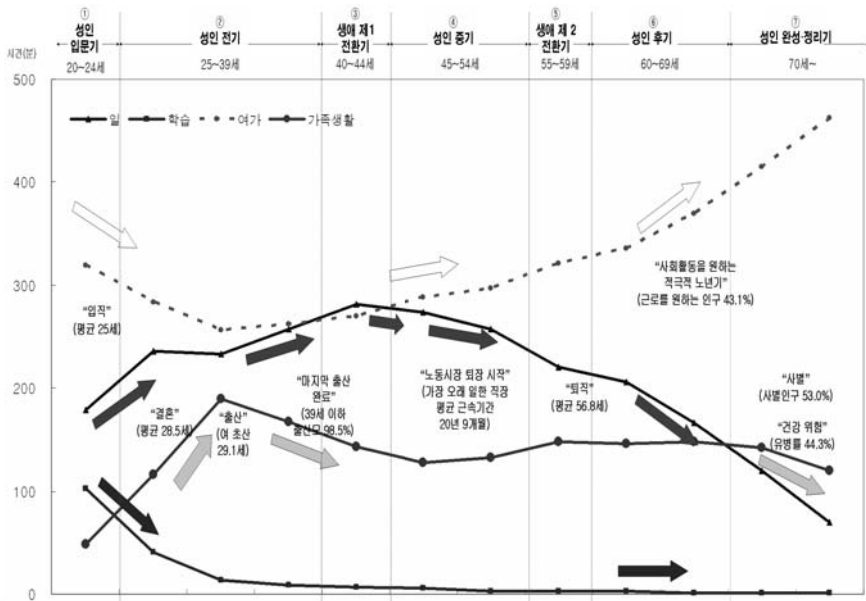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Global) 패러다임의 변화는 글로컬(Glocal)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즉, 세계가 하나로 되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과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활동 결과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교육체제의 유연화 요구 증대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인정·통용될 수 있는 교육체제·인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의 교육경험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등 평생학습의 개방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지역 내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평생교육 내용 등 평생학습 자원 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이란 학교졸업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부단히 계속되는 평생활동으로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습능력과 자율적 학습관리 습관을 습득하지만, 졸업 후에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 스스로 자신의 학습생활을 설계하고 관리하며, 교사는 지식전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학습능력과 학습습관의 형성을 도와주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지식과 기술의 노폐물 증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끊임없는 산출, 인간 수명의 확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생애단계별 학습자

성인의 하루(24시간)의 학습, 일, 여가 분포 곡선을 보면 ① 성인 입문기(20-24세)는 학습(102분) : 정규교육 완료 → 정규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성인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제 구축, 일(179분) : 노동시장 진입 준비기 → 생애경력계획 수립과 직업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 개발, 여가생활(379분) : 가족 형성 준비기 → 배우자 선택과 관련한 가

족교육이 필요하다. ② 성인 전기(25-39세)는 학습(21분) : 학습시간 급속히 감소 → 학습 참여 의향은 높은 단계이므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일(242분) : 본격적인 경제활동 시작 → 각종 직업능력개발 활동, 여가생활(427분) : 가족 형성, 사회생활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행 → 부모·가족생활교육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③ 제1전환기(40-44세)는 학습(6분) : 학습시간 더욱 급격히 감소 → 성인 전기와 마찬가지로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일(281분) : 경제활동이 정점을 이루었다 점차 감소, 여성 경제활동 재시작 → 제2의 경력계획 수립, 여가생활(415분) : 자녀 양육의 완료로 인한 가족 관계 변화, 중년의 위기기 → 심리적 위기 해소를 위한 여가 및 봉사활동 교육, 가족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④ 성인 중기(45-54세)는 학습(4분) : 학습시간 감소와 함께, 평생교육 참여 의향 급감 →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각종 유인책, 일(265분) : 제2의 직업 준비 시작 →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 적응교육, 여가생활(425분) : 자녀독립과 이혼율 상승, 여가시간 증가 → 가족 관계의 재정비를 위한 가족교육과 여가교육이 필요하다. ⑤ 제2전환기(55-59세)는 학습(3분) : 평생교육 참여 의향의 지속적 감소 → 동기 유발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일(220분) : 노동시장에서 공식적 은퇴 시기, 여가활동 중심으로 인생 구조가 변화 → 은퇴 후 생애설계 준비교육, 여가생활(473분) : 여가 시간 증가 → 여가를 생산적으로 보내기 위한 지속적인 여가교육 필요, 건강교육,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요구가 필요하다. ⑥ 성인 후기(60-69세)는 학습(2분) :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 의향의 급격한 감소 → 노인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일(210분) : '일'에 소비하는 시간 비중이 하루 중 14.7%, 경제활동 인구 46.7% → 성인후기 인구 대상 특화된 직업교육, 여가생활(503분) :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사별 등 → 건강교육, 시민교육 및 사회 봉사활동 교육, 여가교육이 필요하다. ⑦ 성인 완성·정리기(70세 이상)는 학습(1분) : 학습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감소 → 여가를 학습활동으로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교육 활성화, 일(94분) : 경제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활동, 여가생활(573분) : 배우자와의 사별 인구 급증(53.0%), 여가활동 시간 급증 → 생애정리교육, 여가교육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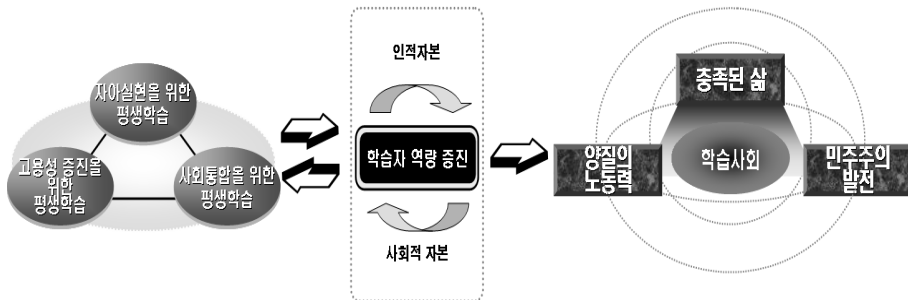
생애 주기별 특성	① 성인 입문기 20~24세	② 성인 전기 25~39세	③ 생애 제1 전환기 40~44세	④ 성인 중기 45~54세	⑤ 생애 제2 전환기 55~59세	⑥ 성인 후기 60~69세	⑦ 성인 완성/경리기 70세~
•임직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본격적 시작	•경제활동 시작과 함께 사회 참여 활동 활발히 실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생활 시작	•경제활동의 정상이자 비중 감소 •제2의 직업 생활 모색 •자녀의 대학 진학과 함께 가족 관계 변화	•제2의 직업 시작, 점차적으로 은퇴 시작 •은퇴 이후의 생활과 노후 대비 필요 •대가족 비중 증가	•퇴직으로 인한 인생 구조의 재경비기	•생활의 중심이 앞에서 여가로 이동이나 사회 참여 욕구가 여전히 높음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사별 비율 증가 : 가족 관계의 재변화	•가족과의 이별, 건강 악화, 은퇴 이후 경제 불안정 나타남. •죽음에 대한 준비 필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평균 32.0% 77.0%	55.8%	36.9%	23.0%	15.1%	10.7%	5.7%
경제활동 참여율	평균 67.0% 53.5%	74.5%	81.5%	77.7%	68.3%	46.7%	
평생학습 참여율	평균 21.6% 32.5%	30.1%	21.7%	18.1%	14.4%	7.3%	6.4%

자료: 통계청(2004), 성인 생활시간 조사.

〈그림 6〉 20세 이상 성인의 생활시간 분포

3) 정책영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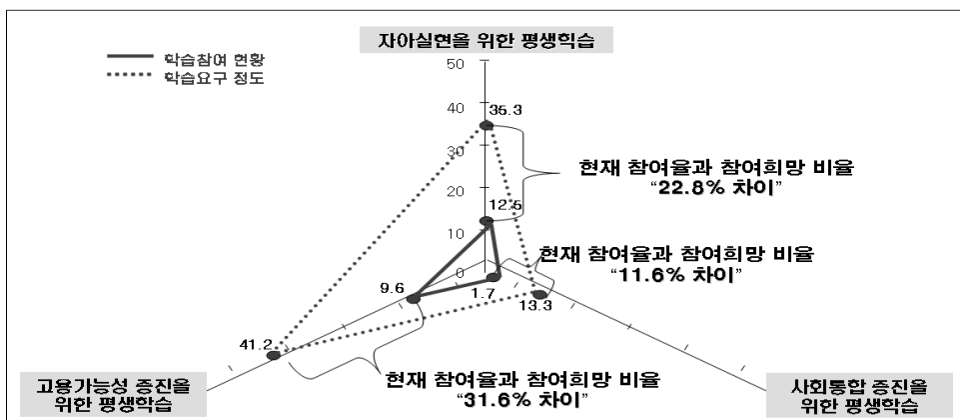
평생학습사회를 지탱하는 3대 축은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충족된 삶, 양질의 노동력 창출,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p.19.

〈그림 7〉 평생학습사회의 3대 축

3개 평생학습 영역별 참여 및 참여요구 현황은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중 자아실현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2.5%, 고용가능성 증진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9.6%,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율 1.7%이며, 평생학습 영역별 참여 요구 현황은 참여요구는 고용가능성 증진 분야 41.2%, 자아실현 분야 35.3%, 사회통합 관련 분야 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 현황과 향후 참여 요구간 격차가 발생되며,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생학습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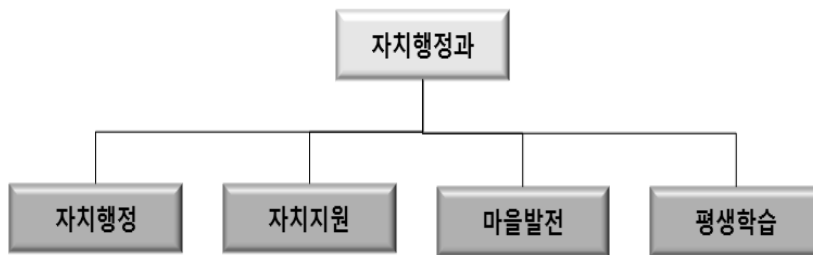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수요분석.

〈그림 8〉 평생학습 참여현황 및 요구정도 분석

Ⅲ. 평생교육 조직 비교분석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늘 배움 공동체 제주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가지의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충 및 기회균등 도모, 둘째, 지역학습문화 진흥을 통한 평생학습의 생활화, 셋째,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 강화, 넷째, 일터의 자기계발 학습조직화 및 직업능력향상교육의 활성화 도모,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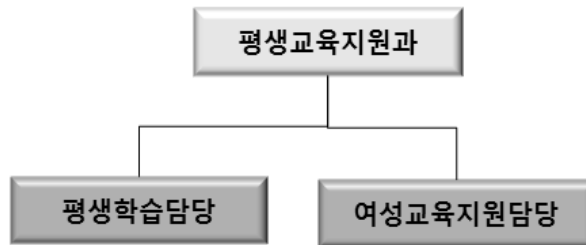


자료: 김진화(201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림 9〉 제주시 평생학습관 조직 현황

반면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통한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발전기금 모금 운동, ③ 명문고등학교 육성, ④ 외국·특성화 대학 등 설립, 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⑥ 여성잠재능력 개발의 6대 추진 목표를 지정하였다.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로 교육지원, 교육특화, 평생학습, 여성교육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전담조직은 평생학습 담당과 여성교육지원 담당을 두고 있다(김진화,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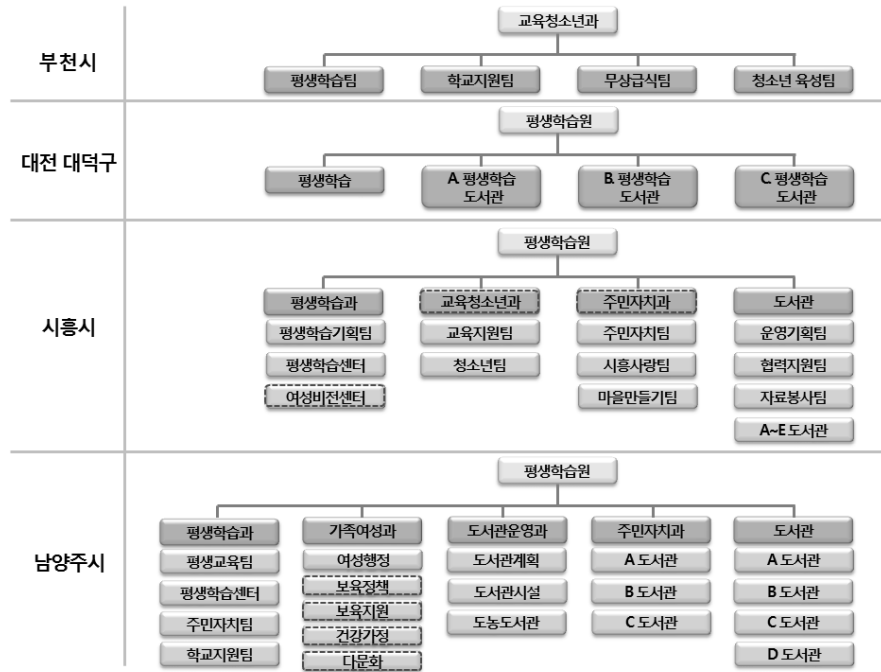
자료: 김진화(201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림 10〉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조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의 조직형태는 팀 단위로 구성(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되어 있으며, 대전 대덕구는 사업소 형태(평생학습+도서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시흥시는 사업소 형태(평생학습+도서관+여성+교육+청소년+주민자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양주시는 사업소 형태(평생학습+도서관+여성+교육+청소년+주민자치+보육 및 아동복지+ 다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조직체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보다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구분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김종래 외(2013).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그림 11〉 평생학습팀 조직 분석

위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조직부분을 비교해보면,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 자치지원, 마을발전,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즉, 4개의 담당 중에서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을 여러 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담당과 여성교육지원 담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이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생교육은 부천시보다는 시흥시나 남양주시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평생교육 인력 비교분석

다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을 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인력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시의 평생학습 담당조직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으로 별정 6급 2명, 기능 7급 1명, 무기계약 5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김진화, 2012).

그리고 제주시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1시민 1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전문가 과정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 시민외국어 및 정보화교육 운영 등이다.

〈표 5〉 제주시 평생학습관 인력 현황

구분	총계	정규직			정원 외	
		소계	6급	기능직	소계	무기계약직
현원(명)	8	3	2	1	6	5

반면 서귀포시의 평생학습 담당조직은 평생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담당과 여성교육지원 담당으로 5급 1명을 포함하여 정규직 8명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원 5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개발,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교육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사업지원, 시민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이다.

〈표 6〉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인력 현황

구분	총계	정규직								정원 외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임계약직	기능직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현원(명)	13	8	1	2	2	0	0	1	2	5	1	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인력체계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의 인원은 5명으로 시민학습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전 대덕구의 평생학습파트의 인원은 11명으로 권역별로 1명씩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 주민센터 내에서도 평생학습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흥시의 평생학습관련 인원은 22명으로 평생학습기획 5명과 평생학습센터 6명, 주민자치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는 학습마을만들기, 마을멘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는 평생교육 8명과 평생학습센터 3명, 주민자치 2명으로 총 13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1센터 1특화사업(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1센터 1현안사업(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7〉 평생학습팀 인력 분석

구분	내용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 팀 단위(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인원 : 5명 - 시민학습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대전 대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 사업소 형태(평생학습 + 도서관) - 평생학습파트, 평생학습도서관 3개파트 총 4개파트, 42명 구성 평생학습파트 인원 : 11명 - 권역별로 1명씩 전담인력 배치 (※ 동 주민센터 내에도 평생학습 담당자 1명씩 지정)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 사업소 형태(평생학습 + 도서관 + 여성 + 교육 + 청소년 + 주민자치) -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주민자치, 도서관 4개과, 총 75명 구성 평생학습관련 인원 : 22명 - 평생학습관련 인원 22명 - 평생학습기획(5명) + 평생학습센터(6명) + 주민자치과(11명) - 주민자치과에서는 학습마을만들기, 마을멘토,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 3개 권역별 네트워크 담당자 각 1명씩 지정
남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형태 : 사업소 형태(평생학습 + 도서관 + 여성 + 교육 + 청소년 + 주민자치 + 보육 및 아동복지 + 다문화) 평생학습관련 인원 : 13명 - 평생교육(8명) + 평생학습센터(3명) + 주민자치(2명)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1센터 1특화사업(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1센터 1현안사업(지역현안문제 해결) 선정 추진

자료: 김종래 외(2013),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위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인력부분을 비교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인력 수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생학습팀에서 시민학습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 조직별·업무별로 요청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력의 수요 예측을 위한 세부적인 담당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대덕구의 동 주민센터 내 평생학습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하거나, 시흥시의 3개 권역별 네트워크 담당자 각 1명씩을 지정하게 된다면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팀을 조직과 인력 부분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생학습관은 인력 수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평생학습관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적시적소에 배치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내용을 요약하면 조직분석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조직부분을 비교해보면,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 자치지원, 마을발전,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즉, 4개의 담당 중에서 실제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을 여러 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담당과 여성교육지원 담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이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생교육은 부천시보다는 시흥시나 남양주시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력분석의 경우 위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인력부분을 비교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의 인력 수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평생학습팀에서 시민학습원 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 조직별·업무별로 요청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력의 수요 예측을 위한 세부적인 담당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대덕구의 동 주민센터 내 평생학습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하거나, 시흥시의 3개 권역별 네트워크 담당자 각 1명씩을 지정하게 된다면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영상 외(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 김진화(201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 김기홍·김미숙·임연(2006), 중고령층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기홍·김미숙(2005),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체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종래 외(2013).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고양시.
- 김태준 외 4인(2004), 평생학습참여실태와 수요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소정·정경희·이윤경·한정란·유삼현(2008), 『성공적인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근 외 4인(2007), 화성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원여자대학교.
- 이지연(2011), 중견전문인력 재도약 프로그램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홍석 외(201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성과관리 체제구축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정경희·이소정·이윤경(2010),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1),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생교육진흥원(2010).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실무자 연수 자료집. 평생교육진흥원.
- 통계청(2009),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 욕구실태조사.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2012). 4050 세대의 은퇴를 대비한 평생학습 활용방안.
- 최운실 외 6인(2008), 2008 평생학습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학습연구용역. 아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http://qolup.seogwipo.go.kr/>.

제주시 평생학습관 <http://qolup.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http://jile.or.kr/index.htm>.

평생교육법.